

“신생기업 IPO 간소화”... 한국판 잡스법 도입 건의

<기업공개>

권용원 금투자협회장 취임 100일

20조원 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강조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검토중

권용원 금투자협회장은 14일 금융투자업계가 작년 한 해 자본시장에서 혁신 성장 기업에 조달한 모험자본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자본 공급 규모는 금투업계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수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형 모험자본에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자기자본 직접투자(PI), 자산운용사의 주요 전략 펀드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해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원



권용원 금투자협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자협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금투자협회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올해와 내년의 조달 규모는 더 늘 것”이라며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으로 한국판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도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판 잡스법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법은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기준을 면제해 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 회장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투자 전략이나 전술이 잘 정리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IPS를 도입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상품선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 상품 간 조세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 적용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권 회장은 “해외의 경우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취임 후 디지털 혁신을 상시적,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디지털혁신팀을 발족했다.

권 회장은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을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 비상장주식거래(K-OTC 프로) 플랫폼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삼성, 中企에 특허기술 1091건 무료 제공

미활용 특허 이전 ‘기술나눔사업’

삼성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삼성전자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에 기술경쟁력을 개선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기회를 찾는 동반 성장 사업이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포스코,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과 기술나눔을 해왔다.

이번에 개방하는 삼성전자의 기술은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통신·네트워크 등 분야의 특허 1091건이다.



진흥원은 이전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오는 16일과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공개하는 기술의 분석내용과 산업·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삼성전자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ar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대기업, 공공연구기관과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LCC 채용문 하반기도 ‘활짝’ 800여 명 채용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등 6곳 항공기 신규 도입 따라 채용확대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여객 수요가 증가하면 저비용항공사(LCC)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행객과 화물수요의 증가로 국내 LCC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6대 LCC 업체들은 올 하반기 8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수시 채용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채용 규모는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LCC인 제주항공은 올 상반기 180명을 채용했다.

올해 전체 채용 규모를 600명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는 400여명을 채

용할 전망이다. 특히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현재 34대를 운용 중인 보잉 737-800 항공기의 보유대수를 연말까지 39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리스 항공기 외에 직접 구매한 신규 항공기들이 차례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400여명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진에어는 상반기 230여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에는 170여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보잉 737-800 5대의 추가 도입과 함께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 160여명을 채용한 티웨이항공은 하반기 14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항공기 3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올 상반기 14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타항공은 하반기에 100여명을, 에어부산은 하반기 2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내실 경영을 통해 기업에 재정비할 방침이다. 에어서울은 다음주 다량 신규노선 운항과 일본 소도시 중심으로 노선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노선 강화를 통해 올해 수익을 늘려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 9월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라 신규 채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CC업체들이 잇따라 신규 항공기를 들여오고 있다”며 “보유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이를 운영, 관리할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AI 담은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

LG전자가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ThinQ)’를 1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스스로 실내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의 종류를 학습하는 능력이 보다 정교해졌다. ‘3D 듀얼아이’를 포함한 고성능 센서와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 ‘딥씽큐(DeepThinQ)’를 탑재해 집안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과 기다리거나 우회해야 할 장애물을 구분한다.

‘인공지능 스마트 터보’를 탑재해 카펫, 코너, 먼지가 많은 곳 등을 스스로 파악해 흡입력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브러시와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코드제로 R9 씽큐에는 시장에서 인정 받은 코드제로 A9의 ‘스마트 인버터 모터 P9’를 적용해 최대 90분의 청소시간 제공하고, 청소성능까지 구현했다.

LG전자는 핵심부품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생활가전에 탑재하는 인버터 모터를 10년간 무상



LG전자가 14일 더 똑똑한 인공지능, 강력한 청소 성능, 고객을 배려한 다양한 편의기능을 두루 갖춘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를 국내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LG전자

보증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코드제로 시리즈에서 호평받은 ‘2중 터보 사이클론’을 신제품에 적용했다. 고객이 청소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흡입력을 처음처럼 유지해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청소기가 갖춰야 하는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신제품은 다크실버, 보헤미안레드 2가지 색상이고, 가격은 출하가 기준 149만원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작년 서비스 수출 증가율, OECD 중 한국만 ‘마이너스’

수출액 877억·전년 비7.2% ↑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0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증가율은 7.2%로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19.1%)를 비롯해 14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

율이 지난해 2015년 -12.8%, 2016년 -2.9%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유달리 부진한 데는 원화 강세 여파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증가 기준)은 달러당 1130.5원으로 2016년의 1160.4원보다 29.9원 떨어졌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 감소세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내수 중심이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쏠려 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이거나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여행 등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뛰어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매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서비스업 성패의 키는 규제가 얼마나 합리화돼 있느냐에 달렸다”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서비스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